

# 광주시의회, 광주FC 예산 삭감 '괘씸죄' 작용했나

예결위서 추경 10억원 전액 삭감 상임위 "보고절차 무시 경고 필요" 광주FC 유감 표명 입장문에 반발 "예산 신청 안한게 아니라 못한 것"

최근 광주시의회가 아시아축구연맹 챔피언스리그 엘리트(ACLE)에 출전 중인 광주FC의 추가 예산 지원을 전액 삭감하며 구단 운영에 비상등이 켜졌다. 시의회는 삭감의 이유로 '절차상 문제'를 들었지만, 광주FC의 유감 표명에 불쾌감을 드러내면서 '괘씸죄'가 작용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광주시의회는 27일 제2차 정례회 본회의를 열고 하반기 추경예산 의결을 마쳤다. 이 안에는 광주시가 편성했다 전액 삭감된 '광주FC ACLE 대회개최지원금' 10억6900만원도 포함됐다. 구체적으로 △선수영입 이적료 4억7300만원 △경기장 시설 조성 2억5000만원 △홈경기 관리비 2억원 △홈경기 진행 1억100만원 △ACLE 홍보비 4500만원 등이다.

앞서 지난 25일 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교육문화위는 '광주FC가 올해 본예산·1차 추경 심의에서 예산안을 제출하지 않



채은지 광주시의회 부의장이 27일 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제329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개최를 알리고 있다. **광주시의회 제공**

고 선지출 후보고한 것은 절차상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 전액 삭감을 결정했다.

심창욱 교문위 부위원장은 "지난해 11월 구단의 ACLE참가가 확정됐으나 전반기 추경에 해당 금액을 편성하지 않고 하반기 추경에 신청한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하다"며 "예산 내역을 보면 이미 비용 처리가 끝난 것으로 보인다. 아무 협의 없이 지출한 뒤 보전을 명목으로 (시의회 추경을) 신청한 것은 옳지 않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해당 예산이 예결위서 부활할 것이라는 시각도 있었으나, 그 사이 유

감을 표명하는 광주FC 입장문이 발표되면서 의원들 사이에는 '구단에 엄중한 경고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졌다. 최종 의결 직전 고광안 행정부시장의 '속고 요청'에도 결과는 바뀌지 않았다.

조석호 의원(예결위·교문위)은 "광주FC 노동일 대표가 시의회가 시민구단을 버렸다고 얘기했다. 이는 의회를 경시한 처사다. 의원들은 시민의 대표로 와 있는 것"이라며 "행정절차 문제에 대해 교문위에서 지적했으니 (예결위서) 재논의해보자는 얘기가 있었다. 그러나 구단의 유감

표명 이후 모든 게 달라졌다"고 강조했다.

결국 광주FC의 입장문 발표가 시의원들의 역린을 건드린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당시 광주FC는 입장문을 통해 "광주시의 어려운 재정 여건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요청했던 것은 광주시민구단으로서 자긍심을 북돋는 일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라며 "(시의회가) 이에 공감하지 못하는 건지, 도움을 주지 않는 결정이 안타깝다"고 밝혔다.

현재 광주FC는 대출 자금과 이자를 포함해 55억원의 채무를 안고 있어, 빚을 털어내지 못할 경우 프로축구연맹의 재정 건전화 정책에 따라 K리그 1부리그에서 퇴출당할 수 있다.

광주FC 측은 '오해가 있다'며 억울함을 내비쳤다. ACLE 확정 이후 시에 본예산·1차 추경 지원을 줄곧 요청해 왔고 이번 하반기 추경도 '이미 쓴 돈'이 아니라 '앞으로 나갈 돈'이었다는 것이다.

노동일 대표는 "광주에서 (세수 부족 등으로) 잠시 버텨달라고 했다. 그간 예산을 신청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못한 것"이라며 "ACLE 지원금도 선수·구장 운영

비 등 대회를 진행하며 지급해야할 비용을 줄이고 줄여 올린 것이다. 추경서 상세히 설명해야 했는데 구단 상황을 잘 아는 공무원들이 최근 다른 보직으로 옮겨가면서 항변을 제대로 못한 것 같다"고 아쉬워했다.

올해 추경이 마무리되면서 광주FC는 사실상 온전히 ACLE 비용을 감내해야 할 상황에 부닥쳤다. 이제 유일한 방법은 내주 진행되는 내년도 본예산 심의 뿐이다. 다만 의회와 갈등을 빚고 있다는 점에서 실질 지원까지의 과제가 산적하다.

의명을 요청한 교문위 의원은 "광주FC가 현 상황을 극복하려면 대표 등 관계자가 의회에 나와 문제로 제기된 것들에 대해 사과해야 한다"며 "의원들 모두 구단이 싫어서 그러는 게 아니다. 본예산서 충분히 논의가 가능하다. 그전에 (예산 신청·입장문 등) 성급하게 벌어지면 나온 일에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노동일 대표는 "광주를 빛내는 선수·코치들을 위해 언제든지 나갈 준비가 돼 있다"며 "공식적으로 요청이 오면 바로 응하겠다. 사고와 함께 상세한 설명으로 오해를 풀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정성현 기자** sunghyun.jung@jnilbo.com

## 김 지사, 출향 국회의원에 현안 지원 요청

특구 조세특례·SOC 등 건의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27일 국회를 방문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고홍 출신 박홍근, 화순 출신 오기형, 임광현 국회의원을 잇따라 만나 국립의과대학과 기회발전특구 조세특례 등 핵심현안과 국고 추가 확보 등을 건의했다.

김영록 지사는 전남 국립의과대학 설립과 관련해 '전남도 통합대학교 국립의과대학'을 지난 22일 정부에 추천한 것을 소개하며, 2026학년도 국립의대 신설 및 정원 배정 절차가 신속히 추진되도록 적극 지원할 것을 요청했다.

또한 기회발전특구의 활성화를 위해 특구 내 기업의 상속세 공제 한도와 적용 대상을 확대할 것과 특구 내 근로자의 소득

세 감면 확대를 인구소멸 위험지역 중심으로 조속히 시행토록 해줄 것을 건의했다.

이와 더불어 국가이양사무의 재원 보전 기간이 2026년까지 한시적으로만 설정됨에 따라 향후 재정운용에도 어려움이 예상됨에 따라 사업의 연속성 확보 및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재원 지속 보전 지원도 요청했다.

SOC 사업과 관련된 국고지원에 대해서는 "지역 핵심사업을 계획한 기간에 완공하기 위해서는 사업비 1조 원 확보가 필요하다"며 국회 심의 과정에서 현재 국회에 제출된 2025년 정부예산안보다 3000억 원 이상 증액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오지현 기자**



조계종, 김영록 지사에 감사패 김영록 전남도지사가 27일 서울 조계종 총무원에서 총무원장 진우스님으로부터 불교문화유산 보존과 진흥 공로에 대한 감사패를 전달받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전남도 제공**

누구나 쉽게 바르는 황토 벽지

# 새집증후군 완벽차단!!

살아 숨쉬는 고티텍스 특허공법 천연황토 코팅제!!

**▶ 용도**

- 어린이집 · 유치원 · 한옥 내 · 외부 · 방바닥 · 전원주택 · 경로당 · 아파트 · 펜션 · 찜질방 · 카페 · 휴집
- 외벽 · 목재 · 양어장 · 물탱크 · 기타 인테리어를 요하는 곳
- 비가 오면 축축하거나 물이 새어 곰팡이 생기는 모든 곳
- 기존 황토미장된 곳이나 도배지를 뜯지 않고 위에 시공을 요하는 모든 곳
- 비염으로 고생하는 어린이방이나 새집증후군 완벽차단!!

**▶ 친환경성**

천연황토, 게르마늄, 숯, 편백나무, 약쑥, 참숯, 은행잎등 건강에 좋은재료를 엄선하여 고분말로 만들어 숨쉬기나는 친환경 웰빙제품입니다.

**▶ 색도조절제 화이트(600g) : 원하는 색상 조절가능**



저가 황토 제품과 비교 절대 불가!!

▲ 유사품에 주의하세요 ▲

시중에 검증 받지 않은 방수제품들이 난무하여 소비자들을 현혹하여 판매 및 시공하는 피해사례가 있다고 있습니다. 드림코리아는 특허 인증 품질 보증 업체입니다.

전화 문의시 관련 책자를 보내 드립니다.  
(제품구입시 시의 지역은 택배로 보내드립니다.)



**드림코리아**  
DREAM KOREA

전국 대리점 및 판매점 모집(무담보, 무보증)  
문의 : 080-362-7788  
www.dreamkorea.biz